

웃둥 보살 빛둥 거사 <9>

구성 : 김흥민



물에 젖은 나무로 숯을 만든 사람 [백유경(百喻經)]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침향목을 건져내 시장에 팔려고 내놨다. 비싼 값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자, 그는 고민에 빠졌다. 옆에서 숯이 잘 팔리는 것을 본 그는 "숯을 만들어 팔면 잘 팔리겠다"는 생각에 숯을 만들어 팔았다. 숯이 된 침향목은 값어치가 떨어져 헐값에 팔렸다. 세상 어리석은 이도 그와 같다. 부지런히 정진해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만, 성불하기 어렵다해서 '빨리 생사를 끊고 아라한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괴로움에 관해 말씀하셨다
설고불래(說苦佛來)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고통에 관해 설하는 장면이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법구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삽화를 살펴보면 기원정사에서 4명의 스님들이 고통(苦)에 대한 토론을 벌일 때, 부처님이 지나가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몸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설법하는 모습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스님들이 서로에게 "세상에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때 한 스님이 말하기를 "음욕이야"라고 말하자, 다른 한 스님이 "아니야, 성내고 노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한 스님은 "놀라고 무서운 마음이 제일 괴로운 일이야"라고 해 이렇게 토론이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고통의 뜻을 궁극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 고통이란 몸이 존재하는 고통을 넘어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노여워하고 성내고 색욕이 일어나고 화를 입는 것을 원망하는 모두가 몸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몸이란 것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며, 근심과 재화의 근원이다. 마음을 고단하게 하고, 극도로 염려하게 하며 생사의 윤회가 쉬지 않는 것 등은 모두 몸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예전에 한 비구가 입산해 수행 중이었다. 당시 비둘기·까마귀·뱀·사슴이 그의 좌우에 붙어살며 의지하고 있었다. 낮에는 먹이를 찾아다니다 날이 저물면 돌아와 그곳에서 잤다. 어느 날 밤이었다. 짐승들이 서로에게 물기를, '세간의 괴로움이 무엇인가?' 짐비둘기가 말했다. '색욕이 치성하면 생각을 돌아버려 여유가 없고 몸을 위태하게 하며 목숨이 멀하게 되니, 색욕이 제일 괴로움이야.' 그러자 까마귀가 말하였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몸을 여위고 눈이 어두워져서 정신과 인식작용이 편



석씨원류(釋氏源流) 설고불래(說苦佛來) 1673년 간행,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곡(半郭) 27.2×18.0cm.

안하지 못하다. 몸을 그들 속에 던지는 꼴이 돼 몸도 없고 목숨도 잃게 되니, 배고픔이 제일 괴로움이야.' 뱀도 한마디 거들었다. '본노와 노여움이 한번 일어나면, 친소를 가리지 않게 돼. 능히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다시 자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사슴이 말했다. '나는 항상 사냥꾼과 여러 늑대·호랑이들이 두렵다. 어쩔곳이 그들의 소리가 들리면 구멍이나 언덕으로 달아난다. 놀라고 무서운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에 스님들은 감격하여 찬탄하며 "천하의 큰 고통은 몸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삽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을 깊이 새겨 세상의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 몸을 통해 만들어짐을 깨달아 모든 고통의 원인인 몸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통한 행복을 얻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학스님(명주사교편학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선승의 눈(萬行)

비랑하나 둘러메고 길 떠나든 날 한걸음 부처나고 두 걸음 부처내네
無心衣 갈아입고 좋아했었네 오호라! 한세월 억만겁을 돌아서

옷가에 별을 달고 달을 달아서 한걸음 두 걸음 억만부처 만나리
밤길 홀로선 걸음도 시원해라 1994년 지리산을 떠나며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력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인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